

연구논문

세대간 애정적 결속에 있어서 부계와 모계의 비교 연구*

A Study on Intergenerational Affective Solidarity in Korean Families

최슬기** · 최새은***
Seulki Choi · Saeun Choi

본 연구는 세대간 애정적 결속의 양상과 결정요인을 부계와 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대간의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통한 기능적 결속이나 잦은 만남 내지 연락을 통한 교류적 결속 거주지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한 구조적 결속의 양상과 변화에 대한 연구들과 달리 세대간 친밀감을 나타내는 애정적 결속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가 조부모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친밀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애정적 결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기능적, 교류적, 구조적 결속 같은 요인들이 어떻게 애정적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1년 7월에 조사된 세대별 문화경험과 문화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 이면서 양가 부모중 적어도 한분씩은 생존해 있는 30~59세 응답자 33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양가 조부모에게 느끼는 친밀감이 같다’라는 응답을 준거집단으로 삼은 다항로짓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부계와 모계간에 변수별 영향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보았다. 그 결과 부계에서는 경제적 지원 관계가 애정적 결속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드러난 반면, 모계에서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도구적, 정서적 지원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애정적 결속력, 세대간 지원, 조부모-손자녀 관계, 부계, 모계, 양계화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KRF-2009-328-B00039). 이 논문의 초고는 2011년도 한국 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토론을 해주신 정재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 분의 심사자들도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새은.
E-mail: saeeun@snu.ac.kr

This study aims to explore emotional closeness betwee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in Korean families with a focus on the lineage. The effects of the geographical proximity and the normative aspect as well as intergenerational financial, instrumental, and emotional support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accounting for the grandparent–grandchildren affective solidarity. Research questions are addressed using the data of "Survey on Generational Solidarity and Differences in Cultural Experience and Perception in Korea," and a series of multinomial regression model were conducted. Findings indicate that the salient factor to boost grandchildren's affective solidarity with paternal grandparents is financial transfers between grandparents and parents. By contrast, all types of intergenerational supports affected grandchildren's emotional closeness toward maternal grandparents. Geographical proximity was associated with the affective solidarity between grandchildren and maternal grandparents. The effects of normative solidarity were not shown at both lineages.

Key words: affective solidarity, intergenerational support, grand parents and grand children relation, lineage

I. 서론

전생애에 걸쳐 형성되는 세대관계는 화폐, 시간, 노동력 등의 다양한 자원의 교류를 통해 세대간의 결속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Silverstein & Bengtson 1997). 개인 및 가족 관련 복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세대간의 자원의 교환은 노인의 생활 및 건강지원 정책, 연금제도, 아동 보육 체계, 사적 이전을 통한 부의 재분배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주목할 가치가 있다. 특히 부계와 모계에 대한 세대간의 결속이 어떻게 동일하게, 혹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세대간 결속이 갖는 함의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¹⁾

1) 본 연구에서는 남편쪽 부모와의 관계를 부계로, 아내쪽 부모와의 관계를 모계라는 용어로 지칭해 사용하였다. 그러나 손자녀와 조부모의 친밀감 및 유대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손자녀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친가·외가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다.

본래 출계율(出系律)의 한 형태를 지칭하는 ‘양계화’는 부계와 모계 친족과 차별없이 균형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면서(조정문 1997), 모계 쪽의 친족과 긴밀히 접촉하고 경제적, 도구적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신문이나 방송 매체 등을 통해 보다 대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KBS뉴스 2012. 1.21). 선행연구에서도 모계와의 잦은 만남과 연락 등을 통한 교류적 결속(associational solidarity)이나 동거나 거주지의 근접성을 통한 구조적 결속(structural solidarity)은 증가하는 추세이고(최셋별 외 2003), 경제적, 도구적 지원을 통한 기능적 결속(functional solidarity)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한경혜·윤성은 2004), 세대간의 애정적인 결속(affective solidarity)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그러나 세대관계가 갖는 가장 고유한 특성이 ‘애정적인 결속’인 만큼(Rossi & Rossi 1990), 세대간의 결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계와 모계, 양계에 있어서의 ‘애정적 결속’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대관계에서의 계보에 관심을 둔 연구 중에서 애정적인 결속에 주목하고 모계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몇몇의 연구조차(이광자 1988; 한남제 1988),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계점이 있다. ‘내 피붙이니까 더 가깝다’는 인식에 기반하여(성미애 2006) 모계는 남성에게는 인척관계이고 여성에게는 혈연관계이므로, 성별에 따라 모계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본가/시가 혹은 처가/친정으로 대별되는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성별과 관계없이 친가/외가의 구분만 존재하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세대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갖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관계의 지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정경희 2003), 세대간의 결속을 논함에 있어서는,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넘어서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세대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가 조부모에 느끼는 정서적 친밀감으로 측정된 세대간 애정적 결속의 양상을 부계와 모계로 구분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세대간의 기능적, 교류적, 애정적, 규범적 결속이 부계와 모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혹은 같은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손자녀가 조부모에 갖는 애정적 결속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부계와 모계의 세대간 결속

벵슨과 그의 동료들은 세대관계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의 핵심적인 차원을 통해 세대간의 결속에 관한 개념화와 조작화를 진행하였다(Bengtson 2001; Bengtson & Roberts 1991; Bengtson & Schrader 1982; Roberts & Bengtson 1991). 세대관계에 있어서 여섯 가지 측면은 합의(consensual solidarity), 규범(normative solidarity), 구조(structural solidarity), 교류(associational solidarity), 애정(affectual solidarity), 그리고 기능(functional solidarity)이며, 이러한 하위 차원이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세대간 결속을 위해 작용한다고 보았다.²⁾

지리적 근접성을 통한 구조적 결속과 전화나 만남을 통한 교류적 결속에 주목한 선행 연구들은 현대 한국사회가 부계 일변도가 아닌 모계와의 결속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보고한다(최셋별 외 2003; 한경혜·윤성은 2004). 2003년 전국가족조사 자료에서 1,755명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각각 한 명 이상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경혜·윤성은(2004)의 연구에 따르면, 남편의 부모(부계)와 아내의 부모(모계) 모두 지리적 근접성의 패턴이 매우 유사하여 40% 가량이 같은 동네나 같은 시의 테두리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정도의 양계화가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여성의 학력이 낮은 경우 시가(부계)와 가까이 사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의 학력이 높고 취업을 한 경우 친정의 부모(모계)와 가까이 사는 비율이 높아 여성 인적자원의 증가가 양계화로의 이행과 관련이 있으리라 진단하였다. 세대간의 지리적 근접성은 세대간의 잦은 만남이나 가사 관련 일상생활에서의 협력을 수월하게 하므로, 편의에 의해 모계와의 거주 거리가 가까워지는 현상이 있음을 보여 준다.

연락 및 만남을 통한 교류적 결속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다. 남성의 경우 본인 부모와의 접촉 빈도에 비해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 빈도는 1/3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데에 반하여, 여성의 경우 본인의 부모보다도 배우자의 부모(부계)와 더 자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윤성은 2004). 전국 2,500가구의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2010년 여성가족부의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서도, 남성의 경우는

2) 세대간 결속의 하위 차원에 대한 개념과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Bengtson & Scharder (1982)를 참조할 수 있다

본인의 부모와는 한 달에 한두 번 또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하여, 배우자의 부모는 한 달에 한두 번 연락을 하거나 1년 중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두 번 연락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였다. 이에 반하여 여성은 본인의 부모와의 접촉 빈도의 패턴이 남성과 유사할 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 빈도에서도 본인의 부모와 동일한 정도의 접촉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의 기능적 결속은 화폐를 통한 경제적 지원이나 시간 및 노동력을 통한 도구적 지원을 통해 나타나는데, 성인 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빈도는 부계 부모에게가 가장 많았다. 반면 성인 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부계에 비해 모계로부터 더 빈번히 행해졌기에(한경혜·김상옥 2010; 한경혜·윤성은 2004), 세대간의 기능적 결속은 쌍방의 상호 호혜적인 양상이라기보다는 수혜의 대상과 공급의 대상이 다른 비대칭적인 모습이었다(한경혜·김상옥 2010). 이러한 비대칭성은 부계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부계 중심의 규범적 결속은 잔재해 있으나, 부계 중심의 전통인 출가외인(出家外人)의 개념은 약화되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여겨진다.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 병원에 모시고 가기 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세대간의 도구적 지원의 경우 모계 부모와의 결속이 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중산층 3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이재경(1999)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결혼 초기에 전업주부들의 음식준비와 가사노동의 일부를 친정에서 도와주는 일이 빈번하고, 경제적이 여유가 있을 경우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결혼한 딸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로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또한 경제적 교환관계에서 보여준 양계화의 비대칭성은 도구적인 지원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도구적 지원의 주된 수혜자는 남편의 부모(부계)인데 반해, 도구적 지원의 공급자는 아내의 부모(모계)인 경우가 많았다(한경혜·김상옥 2010; 한경혜·윤성은 2004).

2010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교류 양상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정서적 지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고(57.4%) 개인/집안 문제를 상담함으로써(49.8%) 정서적으로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대간의 교류 양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 조사에서는 정서적 지원의 양상을 부계와 모계를 나누어 살펴보지 않았기에 정서적 결속에 있어서 부계와 모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알 수 없으나 한경혜·윤성은(2004)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도구적 결속에 비해 정서적인 결속에 있어서 양계화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상으로 양계의 가족 구

성원 중에서 아내의 형제와 부모가(모계) 가장 많았다. 이는 정서적 지원이 ‘관계’의 질에 의존하는 것인만큼 관계지향적인 여성이 정서적 지원의 제공 및 수혜자가 되려는 경향을 보이기 쉽고, 규범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경제적, 도구적 결속에 비해 정서적인 지원은 규범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세대간의 규범적 결속은 장자 중심의 가부장 전통에 따라 딸보다는 아들, 자차남보다는 장남에게 자원을 분배하고, 장남 역시 다른 형제에 비해 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구적 지원을 더 제공해야 한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자원의 교환을 통해 모계와의 세대간 결속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계에 비해 부계의 행사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는 여전히 남아 있는 편이고, 특히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부계 전통의 규범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경 1999). 동거형태를 보더라도 남편의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아내의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보다 여전히 훨씬 높고 장남들과 부모와의 동거가 자차남에 비해 높음으로써 장남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부양부담은 여전히 존재하였다(한경혜·윤성은 2004). 한국고령화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한 Park(2010) 연구에서도 결혼한 장남이 부모에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장남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계 중심의 규범이 완화되면서 양계화의 양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남편이 장남이라고 해서 시가(부계)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장자 중심의 가부장제가 완화되고 양계화로 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조정문 1997). 또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남녀를 심층면접한 성미애(2006)의 연구에서도 장남이 부모 부양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가부장제의 규범은 무너졌으나 공적 지원이 부족한 채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부모 부양의 책임을 나누어야 하는 형제들간의 갈등과 정서적 거리감이 나타났다. 이처럼 장자 중심의 부계사회의 전통은 완화되고는 있으나 실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2. 조부모-손자녀 간의 유대감

조부모와 손자녀에 관련된 국내 연구는 1990년대에 단 5편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 80여 편에 이를 정도로 양적인 팽창을 하였다(김원경·전제아 2010). 양적 팽창의 주된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맞벌이 부부 가족에게 있어서 조부

모가 손자녀 양육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과, 이혼이나 별거, 혹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인해 주양육자로서 손자녀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김원경·전제아 2010). 이에 따라, 조손 관련 연구들 대부분은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조부모 가구)이나 손자녀 양육 조부모에 관한 것이며, 조부모와 손자녀가 갖는 유대감이나 삼세대간의 결속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부계와 모계의 조부모를 구분하여 누구를 더 친밀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세대간의 결속을 파악한 연구는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박경란 1994; 박의순·조병은 1990; 이신숙 2006; 조윤주 2009).

제한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유대나 친밀감을 살펴보면, 대학생 손자녀들의 조부모와의 대면 접촉 빈도나 접촉량을 통한 교류적 결속은 친조부모 쪽이 외조부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지만(박의순·조병은 1990), 조부모와의 유대관계에 있어서는 외조모와 가장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의순·조병은 1990; 이신숙 2006), 친조모와는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더 친밀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신숙 2006). 흔히 손자녀들은 부모와 달리 조부모에게서는 무한한 사랑을 떠올리기 때문에(조윤주 2009), 모계의 조부모와 보다 친밀하게 여긴다는 결과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의 표상으로서의 ‘외할머니’가 실재하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는 중간세대인 어머니의 영향일 수도 있다. 중간세대인 어머니가 친조모보다는 외조모와 가까우므로, 손자녀 또한 모계에 더 친밀하게 느끼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박경란 1994; 이신숙 2006).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는 친조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여(박경란 1994) 부계와 모계를 비교할 수 없거나, 외조부모나 친조부모가 한 명이라도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교하여 모계와 부계 사이의 상대적 친밀감을 파악할 수 없거나(박의성·조병은 1990), 조모만을 대상으로 하고 조부는 포함하지 않았기에(이신숙 2006), 개별 응답자의 부계와 모계 조부모와의 세대간 결속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위에서 논의된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규명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세대간의 결속의 양상은 부계와 모계에 따라 어떠한가?

- ① 부계 조부모 및 모계 조부모와 손자녀의 애정적 결속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 ② 부계 조부모 및 모계 조부모와 부모세대간의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결속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조부모-손자녀 간의 애정적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① 부계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애정적 결속에 조부모-부모세대간의 기능적, 구조적, 규범적 결속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② 모계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애정적 결속에 조부모-부모세대간의 기능적, 구조적, 규범적 결속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I. 연구자료와 방법

1. 조사자료

자료로는 2011년 7월에 실시한 ‘세대별 문화경험과 문화갈등에 관한 설문조사(이하 세대설문조사)’를 사용하였다. 세대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은 농촌거주자를 제외한 우리나라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이었다. 조사대상자 표집틀로는 한국리서치가 구축한 21만 명 규모의 마스터샘플을 사용하였다. 즉 세대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먼저 마스터샘플에 표집된 후 다시 마스터샘플에서 지역, 성, 연령대별 표본수를 할당하여 무작위로 추출되는 2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마스터샘플을 활용한 인터넷조사는 고학력, 전문직, 중산층이 과다 대표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패널 규모가 작은 고령층에서 편파성이 클 위험이 있다. 그러나 대면조사에 비해 패널을 활용한 인터넷조사는 응답자의 조사거부율이 낮고, 응답의 성실도가 높은 편이라는 장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마스터샘플은 그 규모가 크고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다른 연구조사(최유정 외 2011)에서도 사용되어 온 만큼 신뢰성을 검증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표성에 문제가 되는 60대 이상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였다.

세대설문조사에서는 세대간 관계에 있어서 본인 부모님에 대한 질문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도 병렬로 함께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이 질문을 통해 파악한 양가 부모님과과의 관계를 부계 부모와 모계 부모 두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대상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이며 양가 부모님이 적어도 한 분씩은 생존해 있는 경우이다. 이에 덧붙여 응답자의 연령이 30~59세인 경우로 자료를 한정하였다. 이는 60세 이상 응답자의 부모는 초고령층에 속하게 됨에 따라 세대간 교환관계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20대도 제외(n=3)하였는데 이는 자녀

가 있는 기혼자 샘플의 크기가 유의미한 분석을 하기에는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대상으로는 330명이 사용되었다.

2. 변수의 구성

종속변수로 사용된, 손자녀가 느끼는 조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은 "귀하의 자녀는 귀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중 어느 쪽을 더 가깝게 느끼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파악되었다. 응답 유형은 '친가 조부모가 더 가깝다 (n=101)', '외가 조부모가 더 가깝다 (n=138)', '양가 동일하다 (n=91)', '잘 모르겠다 (n=40)'로 이루어졌고, 분석은 '잘 모르겠다'를 제외한 3가지 유형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정서적 친밀감을 판단하는 주체가 손자녀 당사자가 아니라 응답자인 부모를 통해 이루어졌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독립변수로는 세대간 교환관계, 경제적 생활수준, 응답자인 부모의 형제서열, 조부모와 지리적 거리가 사용되었다.

세대간 교환관계는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으로 구분되었고, 부계 조부모와 모계 조부모와 부모 간에 받는 것뿐 아니라 드리는 것을 포함한 쌍방향으로 측정되었다. 예를 들어 경제적 교환관계의 경우 '부계 부모로부터 받기/부계 부모에게 드리기/모계 부모로부터 받기/모계 부모에게 드리기'의 형태로 4개의 변수가 생성되었다.

각각의 변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교환관계는 지난 1년을 기준으로 '경제적 지원을 자주 받기/드리기'인 경우가 각각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보았다. 도구적 교환관계 또한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집안일(청소, 요리, 심부름 등)이나 돌봄(병간호, 아이돌보기 등)을 자주 받기/해드리기'인 경우가 각각 1로 코딩되었다. 정서적 교환관계는 일상대화와 중대사에 대한 논의가 구분되어 측정되었다. 일상사에 대한 대화는 '자주한 경우'를 1로 보았고, 중대사에 대한 상의는 '한다'를 1로 보았다. 정서적 교환관계는 대화의 특성상 '드리기/받기'가 구분되지 않았다.

도움을 주고받는 데 준거가 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 경제적 생활수준은 응답자인 부모뿐 아니라 부계 부모와 모계 부모의 경우가 각각 변수화되었다.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백만원 단위로 측정되었고, 소득이 천이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천이백만원으로 간주되었다. 양가 조부모의 생활수준은 중간 이상인 경우엔 1, 미만인 경우는 0으로 각각 코딩되었다.

응답자인 부모의 형제서열은 가부장제의 규범이 어떻게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변수이다. 남편이 남편의 형제자매 중 첫째인 경우와 아내가 아내의 형제자매 중

첫째인 경우가 각각 더미로 변수화되었다. 조부모와의 지리적 근접성은 조부모의 댁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소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동거중인 경우는 0 시간으로 간주하였다. 인터넷 조사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응답자 특성 변수로는 응답자의 성, 연령, 학력(대졸 이상은 1, 대졸 미만은 0)이 변수화되었다.

변수들에 대한 표본의 분포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는 남성이 44%, 평균연령은 44.1세이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61%이었다.

<표 1>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서적 친밀감 (범주형 변수)			1	3
응답자 성별 (남성=1)	0.44	0.50	0	1
응답자 연령	44.08	7.37	30	59
응답자 학력 (대졸이상=1)	0.61	0.49	0	1
부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하기	0.26	0.44	0	1
모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하기	0.18	0.38	0	1
부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받기	0.06	0.23	0	1
모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받기	0.06	0.23	0	1
부계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하기	0.40	0.49	0	1
모계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하기	0.37	0.48	0	1
부계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받기	0.19	0.39	0	1
모계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받기	0.27	0.44	0	1
부계 부모와 일상대화 자주하기	0.33	0.47	0	1
모계 부모와 일상대화 자주하기	0.39	0.49	0	1
부계 부모와 중대사 상의하기	0.38	0.49	0	1
모계 부모와 중대사 상의하기	0.32	0.47	0	1
부계 부모의 상대적 생활수준	0.49	0.50	0	1
모계 부모의 상대적 생활수준	0.55	0.50	0	1
응답자 가구소득(단위 백만원)	4.45	2.43	0	12
남편의 첫째 여부	0.32	0.47	0	1
아내의 첫째 여부	0.40	0.49	0	1
부계 부모집까지 거리 (단위 시간)	1.72	1.70	0	6.5
모계 부모집까지 거리 (단위 시간)	1.68	1.71	0	6.5

* 가중치 적용 안 함.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느끼는 친밀감의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다항로짓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공칭값(nominal value)인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Long 1997). 이 연구에서는 부계와 모계가 각각 친밀감을 형성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양계가 같다’를 준거 집단으로 두고 손자녀가 부계 쪽을 가깝게 느끼는지 혹은 모계 쪽을 가깝게 느끼는지를 각 변수별로 별도의 계수값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계통에 따라 변수의 영향력을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세대간의 애정적인 결속(affective solidarity)은 어느 쪽으로 더 가깝게 형성되어 있는가? <표 2>에서 보듯이 손자녀의 정서적 친밀도는 모계 쪽에 더 가깝게 나타났다. 친가 조부모를 더 가깝다고 응답한 경우는 30.6%인 반면 외가 조부모가 더 가깝다고 응답한 경우는 41.6%로 모계 쪽이 11%p 더 높았다. 이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생존 조부모가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친가인지 외가인지를 파악하여 조부모와의 유대감을 파악한 선행연구(박의순·조병은 1990)의 결과와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를 중심으로 친가와 외가를 직접 비교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됨으로써 손자녀의 조부모와의 정서적인 유대감은 모계 쪽, 즉 외가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모계를 더 가깝게 느끼고 있는 비중은 41% 정도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친가 조부모와 가깝게 느끼는 정도는 30대 응답자에 있어서 특히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육아 관련 도움을 받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경우에 친정에서 도와주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모계의 발언권이 커지고 유대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최셋별 외 2003), 손자녀의 연령이 아직 어린 30대 부모 가족에서는 손자녀가 부계에 비해 모계를 가깝게 느끼는 경우가 14%p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

〈표 2〉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느끼는 정서적 친밀감

(단위: %)

	친가 조부모가 더 가깝다	외가 조부모가 더 가깝다	양가가 똑같다
30대 응답자의 경우	27.93	41.83	30.25
40대 응답자의 경우	31.81	41.76	26.43
50대 응답자의 경우	31.46	41.27	27.27
30~50대 전체 응답자	30.61	41.82	27.58

* 가중치 적용함

〈표 3〉 양계 부모와 교환관계 유형

(단위: %)

교환관계 유형	양가 모두 없음	부계만 있음	모계만 있음	양가 모두 있음
경제적 지원하기	70.14	12.67	3.95	13.24
경제적 지원받기	90.15	4.03	3.96	1.86
도구적 지원하기	51.01	11.95	9.46	27.58
도구적 지원받기	67.24	5.75	13.74	13.27
일상대화 자주하기	49.42	11.64	17.33	21.61
중대사 상의하기	50.29	17.50	10.91	21.30

* 가중치 적용함

그렇다면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간의 교환관계에 있어서도 모계 쪽이 더 활발한 관련성을 보이는가? 〈표 3〉은 세대간의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교환관계를 부계와 모계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조부모 세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양상을 보면 부계를(즉, 본가/시가) 지원한다는 응답이 25.9%(12.7+13.2)에 달하는 반면 모계를(처가/친정) 지원한다는 응답자는 17.2%(4.0+13.2)로 부계 쪽이 8.7%p 더 높았다. 특히 부계는 도와드리지 않고 모계만 지원한다는 응답자는 4%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한경혜·윤성은 2004; 한경혜·김상욱 2010) 일치하는 결과로서 세대간의 경제적 교환관계에서의 수혜자는 부계가 우선함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부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의무, 혹은 규범(이재경 1999)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조부모 세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음에 있어서는 부계 조부모로부터가 5.9%, 모계 조부모로부터가 5.8%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양가 모두로부터 지원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90%가 넘는다. 결혼하여 자녀를 가진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

움을 받는 경우는 부계나 모계 구분없이 혼치 않은 것이라 하겠다.

세대간의 도구적 지원의 교환은 응답자의 과반수 가량이 참여하고 있어 경제적인 교환에 비해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세대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부계 쪽 조부모에게 39.5%, 모계 쪽 조부모에게 37%로 계통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도구적 지원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계통에 따른 차이가 확인됐다. 부계 조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19%인 반면, 모계 조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27%로 8%p 차이가 났다. 부계 조부모로부터만 도움을 받는 경우는 5.8%에 불과해, 손자녀 양육과 같은 도움이 필요할 경우 모계 조부모로부터만 받거나 양계 모두에게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이재경 1999; 한경혜·윤성은 2004; 한경혜·김상욱 2010)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된 결과로, 모계와의 결속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도구적 지원을 제공받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정서적 교환 양상에 있어서 일상대화는 모계 쪽이 더 활발했다. 부계 부모와 자주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자는 33.3%인 반면, 모계 부모쪽과 자주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자는 38.9%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중대사를 상의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역전된다. 부계 부모와 상의한다고 38.8%인 반면, 모계 부모는 32.2%로 부계 부모쪽이 6.6%p 더 높았다. 평상시 일상사에 대한 잦은 대화는 모계 부모와 더 많이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는 부계 부모와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모계(친정)와 매일 전화를 하며 일상을 나누더라도, 명절이나 공식적인 행사와 관련해서는 부계(시댁)와 실질적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교류를 해야 한다고 여긴다는 선행연구(이재경 1999; 성미애 2006)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자주 대화를 나눌 만큼 모계 쪽으로 친밀도는 높으나, 가족 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여전히 부계 쪽에 치우친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해석된다.

〈표 4〉는 세대간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통한 기능적 결속이 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표 4〉의 결과 중 첫번째 계수값은 양가 똑 같다고 응답한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부계가 더 가깝다고 응답한 경우의 로그오즈비(log-odds ratio)의 지수값이다. 이때 1 이상이면 긍정적인 관계를, 1보다 작으면 부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모델1~3은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이 각각 독립변수로 제시되어 있고, 모델4는 세 가지 지원의 교환관계가 함께 포함된 경우이다. 경제적 지원(모델1)에 있어서는 모계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부계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 손자녀

〈표 4〉 세대간 교환관계에 따른 손자녀의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다항로지 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부계 부모 쪽 vs. 양가 같다				
응답자 성별 (남성=1)	1.28	1.17	0.91	0.99
응답자 연령	0.99	0.99	1.00	0.99
응답자 학력 (대졸 이상=1)	0.97	0.95	0.97	1.07
부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하기	0.70			0.67
모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하기	3.37*			3.44*
부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받기	6.77**			8.09**
모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받기	0.32			0.28
부계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하기		1.19		0.91
모계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하기		1.07		1.21
부계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받기		1.06		0.97
모계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받기		0.60		0.69
부계 부모와 일상대화 자주하기			1.33	1.29
모계 부모와 일상대화 자주하기			0.64	0.63
부계 부모와 중대사 상의하기			1.70	1.59
모계 부모와 중대사 상의하기			0.70	0.7
상 수	1.08	1.43	1.15	1.36
모계 부모 쪽 vs. 양가 같다				
응답자 성별 (남성=1)	0.50*	0.55*	0.69	0.78
응답자 연령	1.00	1.02	1.02	1.02
응답자 학력 (대졸 이상=1)	1.01	0.99	0.98	1.04
부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하기	0.65			0.52
모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하기	1.99			2.35
부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받기	0.50			0.84
모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받기	0.76			0.78
부계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하기		0.81		0.95
모계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하기		1.08		1.19
부계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받기		0.19***		0.19**
모계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받기		3.08**		3.27*

(계속)

(계속)

부계 부모와 일상대화 자주하기			0.23***	0.24***
모계 부모와 일상대화 자주하기			2.45*	2.17
부계 부모와 중대사 상의하기			0.32**	0.38*
모계 부모와 중대사 상의하기			1.69	1.39
상 수	1.77	1.02	0.95	0.85
N(단위: 명)	330	330	330	330
Log Likelihood	-337.68	-335.68	-315.77	-297.41

* p < .05; ** p < .01; *** p < .001

가 양계를 똑같이 느끼는 경우보다 부계 조부모에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부계 조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양가 동일 대비 부계 조부모 쪽에 친밀감에 느낀다는 오즈가 7배 가까이 되었고, 모계 조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 양계 동일 대비 부계 조부모에 친밀감을 느낄 오즈가 3배가 넘게 높았다. 하지만, 양가 동일 대비 모계 조부모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것에는 경제적 지원 관계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없었다.

도구적 지원(모델2)에 있어서는 모계 조부모와 관련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드러났으며, 부계의 도구적 지원관계도 부계 조부모와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계 조부모와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부계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을 경우 양계를 똑같이 느끼는 경우보다 모계 조부모에 친밀감을 느낄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고, 반대로 모계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엔 모계 조부모에 친밀감을 느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정서적 지원(모델3)에서도 모계 조부모와 관련성에만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으며, 부계와의 정서적 지원도 부계 조부모와의 친밀도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으나 모계 조부모와의 친밀도와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부계와 일상적 대화를 나누거나 중대사를 상의하는 정서적 지원이 있을수록 손자녀가 양계를 똑같이 느끼는 경우보다 모계 조부모에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반면에, 모계와 일상대화를 자주 나눈다면 손자녀가 양계를 똑같이 느끼는 경우보다 모계 조부모를 친밀하게 느끼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관련성은 세 가지 지원 유형의 교환이 모두 포함된 모델4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발견되었다.

〈표 5〉 생활수준, 형제서열, 접근시간 관련 손자녀의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다항로지트 회귀분석

	모델5	모델6	모델7	모델8
부계 부모 쪽 vs. 양가 같다				
응답자 성별 (남자=1)	0.99	1.02	0.95	0.98
응답자 연령	0.99	0.99	0.99	0.99
응답자 학력 (대졸 이상=1)	1.08	1.10	1.14	1.20
부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하기	0.67	0.68	0.69	0.69
모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하기	3.45*	3.46*	3.22*	3.16*
부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받기	8.03*	8.54**	9.45**	10.26**
모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받기	0.27	0.26	0.25	0.23
부계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하기	0.89	0.89	0.86	0.81
모계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하기	1.21	1.20	1.20	1.21
부계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받기	1.00	0.89	0.93	0.87
모계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받기	0.69	0.73	0.67	0.69
부계 부모와 일상대화 자주하기	1.25	1.35	1.28	1.28
모계 부모와 일상대화 자주하기	0.65	0.59	0.63	0.61
부계 부모와 중대사 상의하기	1.65	1.62	1.50	1.58
모계 부모와 중대사 상의하기	0.71	0.67	0.69	0.68
부계 부모의 상대적 생활수준	0.99			0.99
모계 부모의 상대적 생활수준	0.80			0.77
응답자 가구소득	1.00			1.00
남편의 첫째 여부		1.14		1.12
아내의 첫째 여부		1.52		1.50
부계 부모집까지 접근시간			0.93	0.91
모계 부모집까지 접근시간			0.92	0.92
상 수	1.40	1.17	1.85	1.77
모계 부모 쪽 vs. 양가 같다				
응답자 성별 (남자=1)	0.81	0.81	0.79	0.88
응답자 연령	1.03	1.02	1.02	1.03
응답자 학력 (대졸 이상=1)	1.01	1.14	1.07	1.11

(계속)

(계속)

부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하기	0.49	0.48	0.55	0.48
모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하기	2.83	2.51	2.51	3.12*
부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받기	1.02	0.78	0.68	0.81
모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받기	0.70	0.87	0.73	0.73
부계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하기	0.94	0.86	0.98	0.88
모계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하기	1.21	1.17	1.21	1.21
부계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받기	0.23**	0.19**	0.19**	0.22**
모계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받기	3.11*	3.42**	2.99*	2.85*
부계 부모와 일상대화 자주하기	0.25**	0.24***	0.22***	0.26***
모계 부모와 일상대화 자주하기	2.20*	2.25*	2.01	2.07
부계 부모와 중대사 상의하기	0.37*	0.41*	0.43	0.43
모계 부모와 중대사 상의하기	1.34	1.22	1.46	1.25
부계 부모의 상대적 생활수준	0.43*			0.44
모계 부모의 상대적 생활수준	2.37*			2.50*
응답자 가구소득	0.93			0.94
남편의 첫째 여부		0.61		0.63
아내의 첫째 여부		1.74		1.68
부계 부모집까지 접근시간			1.30*	1.26
모계 부모집까지 접근시간			0.78*	0.78*
상 수	0.63	0.79	0.82	0.61
N(단위: 명)	330	330	330	330
Log Likelihood	-293.06	-294.00	-291.87	-284.62

* p < .05; ** p < .01; *** p < .001

<표 5>에서는 세대간 교환관계에 더해 경제적 생활수준과 형제서열을 통한 결속, 거주지의 근접성을 통한 구조적 결속을 고려해 보았다.³⁾ 모델5는 세대간 지원과의 관련성

3) 한 심사자께서 변수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상관계수는 0.1 부근으로 매우 낮았고, 최고 수치는 0.5986에 불과했다.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낮더라도 집합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된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델에서 VIF 지수를 검증하였다. VIF 평균은 1.5였고 최고수치도 1.94에

속에서 부모와 양계 조부모의 생활수준이 어떻게 손자녀-조부모 간의 친밀도에 영향을 주는지 보여 준다. 우선 응답자 가구의 소득 자체는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애정적인 결속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부계 조부모의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 손자녀가 양계를 똑같이 느끼는 경우보다 모계 조부모와 친밀하다고 응답할 경우가 유의하게 낮았고, 반대로 모계 조부모의 생활수준이 높을 때, 손자녀가 양계를 똑같이 가깝게 느끼기보다는 모계 조부모를 더 친밀하다고 느낄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양계의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거나 모계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양계화의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부계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양계화가 저조했다는 선행연구(조정문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모델6에서는 부모 각각이 형제서열에서 갖는 위치의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흥미롭게도 부계에서나 모계에서 형제서열의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장남일 경우 부계의 조부모에, 어머니가 장녀일 경우 모계의 조부모와 더 친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편이 장남이라고 해서 모계보다 부계를 더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거나(조정문 1997). 장남이 부모 부양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가부장제의 규범이 약화되었다는 연구(성미애 2006)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세대가 장남/장녀로서의 규범적 결속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손자녀와 조부모의 애정적 결속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모델7에서는 세대간 거주지의 근접성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거주지의 근접성은 손자녀와 부계 조부모와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손자녀와 모계 조부모와의 친밀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계 조부모의 집이 멀수록, 혹은 모계 조부모집이 가까울수록 손자녀가 양계를 똑같이 느끼기보다 모계 조부모를 더 가깝게 여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거주지의 근접성을 통제하고 나면 모계와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부계 부모와 일상대화 자주하기를 제외한 정서적 교환관계 변수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된다(모델 7). 즉 거주지의 근접성이 정서적 지원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모델8에서는 고려된 모든 변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전의 모델들에서 나타났던 각 변수들의 유의한 경향성은 모델8에서도 유지되고 있었다.

불과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여 손자녀와 조부모간의 친밀감에 주목함으로써 세대간의 애정적 결속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손자녀들은 부계 조부모에 비해 모계의 조부모에게 친밀감을 가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의 정서적 친밀도는 선행연구(박의순·조병은 1990)와 마찬가지로 모계 쪽이 더 가깝게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 중에서 외조모를 가장 친근하게 여기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성향은 30대 응답자의 경우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양계화가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부부들이 친정/처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 탓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젊은 세대의 부계와의 결속보다는 모계와의 결속이 강한 현상이 세대효과인지 연령효과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세대간의 기능적 결속에서는 양가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에는 부계와 모계간에 차이가 미미하였으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는 부계 쪽이 더 많았다. 기능적, 교류적, 구조적 결속에 있어서는 양계 모두와의 결속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도구적인 지원을 받는 기능적 결속이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한 교류적 결속에 있어서 모계와의 결속이 두드러졌다. 흥미로운 점은 중대사를 상의할 때에는 부계 쪽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일상대화는 모계 부모와 나누는 경우가 더 많다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문제에서는 부계와의 관련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부모-자녀 세대간의 기능적, 교류적, 구조적 결속 등이 조부모-손자녀의 애정적 결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부계와 모계의 조부모를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부계 조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대간의 도구적 지원을 통한 기능적 결속이나, 만남과 대화를 통한 교류적 결속, 그리고 거주지의 근접성과 같은 구조적 결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부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수록 손자녀가 친가를 가깝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장적 전통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부계와의 경제적, 도구적 지원이나 빈번한 만남 및 근거리 거주 등이 규범적으로 기대되어지므로, 손자녀의 친조부모에 대한 친밀감의 거리는 부모의 생활 수준이나 조부모가 제공하는 도움, 거주지의 거리등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부계 조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받는 주된 수혜자이므로, 반대로 경제적인 지원이 제공되었을 때 손자녀가 양가 모두 보다는 친가와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흥미롭게도 부계 조부모와의 관계에는 부계가 아닌 모계 조부모와 관련된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모계 조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수록 오히려 부계 조부모와 친밀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계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부계 중심의 가부장 전통에는 배치되는 것이며, 본 연구의 응답자 중에서도 모계에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는 4%에도 미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계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는 외가가 건강상의 이유나 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일 수 있다. 따라서 모계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모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에서 손자녀는 양가 모두보다는 친가의 조부모와 더 가깝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손자녀의 모계 조부모와의 친밀도에는 조부모-부모 세대간의 기능적, 교류적, 구조적 결속 등이 다양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가로부터의 손자녀 돌봄 등의 도구적 지원이 늘어나고, 거주지의 근접화를 통해 모계와의 결속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양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되어 왔는데(최셋별 외 2003; 한경혜·김상욱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계화가 손자녀의 모계에 대한 애정적 결속으로까지 이어짐을 보여주었다. 즉, 모계 조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고 도구적 지원을 통한 기능적 결속이 클수록, 그리고 거주지의 근접을 통한 구조적 결속이 클수록 손자녀들이 모계 조부모와 가깝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한편 모계 조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부계 조부모와 관련된 요인도 존재하였다. 부계로부터 도구적인 지원을 받거나 정서적 지원을 받을 때 모계를 더 가깝게 여길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부계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손자녀가 양가 모두보다 부계를 더 가깝게 여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반하여, 도구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계를 가깝게 여기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모계를 더 가깝게 여길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만 나타났다.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는 손자녀의 조부모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박경란 1994; 박의순·조병은 1990; Whitbeck et al. 1993), 모계에서 도구적이나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과는 달리 부계에서 도구적이나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경우, 애정적인 결속에 기여

하기보다는 어머니가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부계와의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모계와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줄어드는 영향만을 미친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부계나 모계에서 형제서열의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듯이(성미애 2006; 조정문 1997) 아들, 특히 장남에게 우선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장남 역시 다른 형제에 비해 노부모에게 경제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범적 결속으로 표현되는 장자 중심의 가부장의 전통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경제적 혹은 도구적 교환관계를 통해 세대간의 결속을 파악하던 선행연구들에서 나아가,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애정적 결속력을 통해 부계와 모계의 세대간의 결속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부계와 모계간에 서로 다른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교환 양상과 손자녀와의 애정적 친밀감을 보임을 확인시켰다. 또한, 부계와는 경제적 지원관계가 애정적 결속력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모계와는 경제적 지원관계와 함께 도구적, 정서적 관계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 손자녀와의 애정적 결속력을 높이는 메커니즘이 부계와 모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애정적 결속은 당사자인 손자녀가 아니라 응답자인 그들의 부모에 의해 판단된 것이라는 점이다. 세대설문조사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직접 측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손자녀가 지각한 조부모-손자녀 관계가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응답자인 부모의 특성에 따라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친밀도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응답했을 수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배우자의 부모보다 자신의 부모와 더 가깝다고 응답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와 조부모간의 긍정적 관계는 손자녀와 조부모간의 애정적 관계에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박경란 1994; 박의순·조병은 1990; Whitbeck et al. 1993), 개념적으로 손자녀가 인지하는 조부모에 대한 친밀감 자체가 부모세대의 인지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박경란 1994; Hill et al. 1970) 측정오차가 심각하지는 않으리라 판단된다. 더욱이 성별의 효과는 모델1과 모델2에서만 나타났을 뿐 다른 모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기에 세대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성별에 의한 편이는 심각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후속연구에서 손자녀가 직접 응답한 손자녀와 조부모간의 애정적 결속을 측정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하게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부계/모계에 따른 세대관계에 대한 이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대설문조사는 손자녀 관련 특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손자녀 관련 변인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손자녀의 연령이나 출생순위, 성별이 양계 조부모와의 친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부장제의 전통의 영향력은 미취학 연령대의 어린 손자녀인지 성인이 된 손자녀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손자녀가 장자 여부와도 관련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 손자녀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면 보다 풍부하게 분석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일회적인 관계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자주 받기/드리기 여부만을 판단한 가변수의 형태로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교환관계를 측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먼저 '자주'라는 판단에 응답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응답의 신뢰도(reliability)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만약 빈도의 정도에 따라 교환관계에 영향력이 다르다면 과도하게 단순히 측정된 것일 수 있고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빈도가 낮더라도 절대 크기가 중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소액의 경제적 지원은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처럼 큰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면 애정적 결속력에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동일 연구대상에 대해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측정한 종단자료가 아닌 횡단자료가 갖는 한계점을 지닌다. 횡단자료를 사용하였기에 독립변수간의 영향력과 측정 시점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다. 특히 조부모와 부모 간의 기능적, 교류적, 구조적 결속은 생애 전체를 통해 축적되어 온 것인데 현시점을 기준으로 조손간의 애정적 결속력과 함께 측정되었으므로, 그 영향력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는 애정적 결속이 오히려 기능적, 교류적, 구조적 결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역인과성(reversed causality) 문제와 관련된다. 부계 중심의 가정에서 부계 손자녀에 대한 선호가 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 혹은 정서적 교환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다시 부계 손자녀에 대한 애정적 결속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역인과성 문제는 결속유형을 직접 변수화하는 대신 적절한 도구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결속유형별로 구분되는 도구변수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변수간에 측정시점의 차이를 두거나 역인과성을 고려한 종단연구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과관계는 역인과성이라는 위험은 통제하지 못한 잠정적인 결론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조사가 갖는 한계점이다. 모든 회귀분석 모델에 응답자의 성, 연령, 학력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통제되지 않은 인터넷 응답자의 특성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인 일반으로 보편화시키는 데 주의사항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원경·전제아. 2010.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조손 관련 연구 동향: 1991년부터 2010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5(4): 653-671.
- 박경란. 1994. “부모-조부모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 손자녀-친조부모간의 유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4(2): 74-89.
- 박의순·조병은. 1990. “청년기 손자녀가 지각한 각 조부모와의 유대감.” 《가족학논집》 2: 28-62.
- 성미애. 2006. “질적 연구를 통한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대한 진단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59-72.
- 이광자. 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도시 중산층 핵가족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신숙. 2006. “한미 대학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조모-손자녀간의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53-68.
- 이재경. 1999.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가족의 근대적 변형.” 《한국여성학》 15(2): 55-86.
- 정경희. 2003. “고령화 사회에서의 세대관계.” 《사회연구》133-157.
- 조윤주. 2009. “성인 손자녀의 조부모 동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293-303.
- 조정문. 1997. “한국사회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13(1): 87-114.
- 최유정·최셋별·이명진. 2011. “세대에 따른 직업 관련 사회정체성의 사회심리학적 의미.” 《한국인구학》 34(3): 55-84.
- 최셋별·이명진·김재은. 2003. “한국의 가족 관련 사회정체성 연구: 감정조절이론(ACT)의 수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7(5): 1-31.
- 한남제. 1988. “도시주민의 친족관계.” 《한국사회학》 22(3): 35-60.
- 한경혜·김상욱. 2010. “세대간 지원교환 설명요인에 있어서의 부계와 모계의 비교.” 《한국사회학》 44(4): 1-31.

- 한경혜·윤성은. 2004. “한국가족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 세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7(2): 177-203.
- Bengtson, Vern L. 2001. “Beyond the Nuclear Famil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ultigenerational Bo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16.
- Bengtson, V. and S. Schrader. 1982. “Parent-Child Relations.” In D.J. Mangen and W. Peterson(eds.)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Vol. 2. Social Roles and Social Particip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Bengtson, V. and Robert Leslie Richards Roberts. 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Aging Families: An Example of Formal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4): 856-871.
- Hill, R., N. Foote, J. Carlson Aldous, and R. McDonald. 1970. *Family Development in Three Generations*. Cambridge, Mass: Schenkman.
- Long, J. Scott. 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Park, Cheolsung. 2010. “How Are Upstream Transfers Determined? New Evidences from South Korea.” *Pacific Economic Review* 15(4): 532-553.
- Roberts, Robert Leslie Richards and Vern Bengtson. 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Families: Untangling the Ties That Bind.” *Marriage and Family Review* 16(1): 11-46.
- Rossi, Alice S. and Peter H. Rossi.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Hawthorne.
- Silverstein, Merrill and Vern L. Bengtson. 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 429-460.
- Whitbeck, Les B., Danny R. Hoyt, and Shirley M. Huck. 1993. “Family Relationship History, Contemporary Parent-Grandparent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4): 1025-1035.
- KBS뉴스 2012/01/21 <http://news.kbs.co.kr/society/2012/01/21/2423558.html>

<접수 2012/2/28, 수정 2012/3/16, 게재확정 2012/3/20>